2020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현장실습
온라인 수기 공모집

대전과학기술대학교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NLINE HANDWRITING CONTEST

본 e-book은 2020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현장실습 온라인 수기 공모집

CONTENTS

01 위기를 기회로 - 박소영 4p

02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간호를 - 민신혜 7p

03 병원 현장실습을 통한 경험 - 정나영 10p

04 실습가면 뭐하니? - 정영선 13p

05 실습은 처음이라.. - 김현정 16p

06 Mission1. 코로나19 속 첫 현장실습 다녀오기 - 배정은 19p

07 '매력적인 전문가, 치과위생사' - 김혜원 22p

08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 최지안 26p

09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기 - 김다희 29p

01 위기를 기회로

실습생: 박소영
현장실습기관: 충남대학교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4학년 1학기, 원래의 실습 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 내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학생들이 안전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간호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전례 없던 온라인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실습은 간호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과 술기를 적용하고 간호 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습을 해 자신이 어떤 과와 잘 맞는지도 생각해보게 되고 간호사가 되기 전 직·간접적으로 전반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환자의 질병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세워 환자를 간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임상 실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의 성인 실습은 신경외과, 신장내과, 응급실을 거쳐 왔는데 이번 실습 또한 특수파트 실습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한 곳을 가서 실습하며 특수파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과 장비들을 공부하게 되지만 온라인 실습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실습을 해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보고 간호과정을 세워보고 필요한 전문지식과 간호 술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과제를 수행하고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려면 철저한 학습과 자료검색 및 논문 참고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하므로 겉핥기식 공부가 아닌 심화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머리로 외우려 하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을 위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머리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변화한 수업 방식에 맞춰 변화한 공부법을 따라 학습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임상 실습 경험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 실습 전에는 오로지 취업만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직무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처음 온라인 실습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온라인으로 실습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걱정과 달리 실제 과제를 받았을 때 제대로만 한다면 임상 실습만큼이나 배울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임상 실습은 직접 간호사들의 인수인계를 보고 듣고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에게 기본간호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실습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제 환자를 보며 사정할 수 있고 사례에 대한 간호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 정리, 검체 운반, 검사실로 이동하기 등 무언가를 배우는 실습보다 인력을 대체하는 실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실습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부족한 점과 채워 나가야 할 점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 관련된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기록하고 어떠한 문제를 더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사고의 폭을 넓혔습니다. 같은 사례를 가지고 과제를 했기 때문에 과제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비교해보며 토의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온라인 실습

vSim 프로그램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의 케이스 스터디는 수업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고 환자의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간호과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다시 찾아보며 질병에 관해 공부하고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였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사례를 통해 임상적 검사 및 진단적 검사 결과를 보고 분석하고 약물에 대해 찾아보고 간호 수행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임상 실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학습할 수 있으면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부서별로 다빈도 질환의 정의, 증상, 치료 및 간호, 다빈도 검사의 정의, 진단, 간호 등을 모두 작성했던 것은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 학습 효과를 키웠습니다.

zoom으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 토론했던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했기에 사례의 우선적인 간호에 대해 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실습은 임상 실습에서 부족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간호 공부를 보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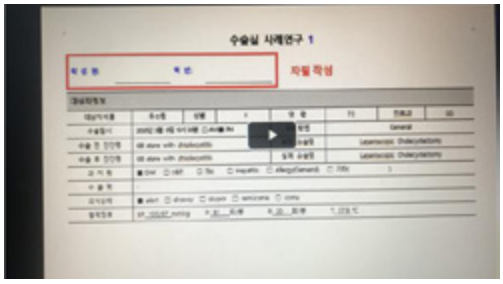
처음에는 많은 과제가 벅찼지만, 실습이 모두 끝났을 때 중환자실의 환자 사정 방법, 장비와 기구, 약물, 수술실의 구조 및 환경, 업무, 수술기구, 응급실의 환자 분류체계, 응급카트 물품 등을 모두 학습하며 세 곳의 실습을 간접 체험해본 느낌이었습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이번 온라인 실습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의 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방법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임상 실습보다 교수님과 학생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온라인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임상 실습과 비슷한 환경으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실습 환경과 업무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매일 하루치 분량의 과제를 통해 학습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도는 상승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해를 토대로 많은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관련 논문과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보고서가 요구하는 정답을 찾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분석1



시나리오 분석2

이번 기회로 의학용어, 약물 용량 계산, 핵심 술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짚어 볼 수 있었던 것이 자가 진단을 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은 기회였기 때문에 예비의료인으로서 나중에 임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온라인 실습은 자칫하면 단순한 인터넷강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하고 확인해볼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학기 vSim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vSim 수업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환자와 대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간호 사정과 수행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간호한 것에 대한 점수도 나와서 부족한 부분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시뮬레이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환자 중심 치료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증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내 simulation 수업과 비슷했지만, 온라인 실습과 장점만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zoom을 통해 소통하는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도 없고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zoom으로 의견을 나누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간호 수행과 수행 절차를 배우는 것이 앞으로 임상을 나갈 학생간호사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차가운 공기 속 에서 따뜻한 간호를

실습생: 민신혜
현장실습기관: 충남대학교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생각보다 빠르게 달려온 3학년이 된 시간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간호사 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COVID-19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증상이 발현된 확진자의 치료 공간 등의 주요 시설은 병원.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지식, 기술, 능력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지만, 3학년 1학기에는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었다.

2학기에는 운이 좋았던 건지,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인지 실습병원과 실습부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첫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이나 정보로 대전에서 국립대학교 병원 중에 진료, 교육, 연구, 보건의료 등이 잘 이루어져 있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및 의료 활동을 볼 수 있겠구나', '나는 스스로 직접 방문체험해본 경험도 없고, 질병이나 심한 부상 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대학병원에 가본 경험도 많지 않아서 좁은 시야에서 진료 부서를 찾아보기만 했는데, 실습 기간 동안 병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겠구나'등 실제 임상실습을 통해 직접적인 간호제공에 대해서 관찰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러스 노출이 안전할 수 없는 병원에서 아무리 내가 감염 예방에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지?','선생님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첫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을까?'등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교수님께서 사전에 공지해주신 현장실습 유의사항과 실습지침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고, 현장실습기간이 다가올수록 마음가짐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배치된 실습 부서는 수술실이었다.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에 수술을 행하는 곳이고, 마취를 해 수술부위의 소독, 조명, 수술기구의 준비, 수액·수혈의 준비 등을 한 다음 수술을 행하는데 적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청결 및 무균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교육받았고, 오염이나 감염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1순위라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다. 그로인해 교내실습에서 배운'엄격한 무균술'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시작 전,중,피부봉합 전 등 수시로 거즈나 바늘, 수술기구 등 수술에 사용된 모든 품목을 확인하는 과정인 수술계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수술실은 해부생리의 지식을 실제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수술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하며, 수술 명칭을 포함하여 각종 수술 기구의 명칭, 용도, 소독, 준비과정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숙련된 의료인들의 광범위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학생으로서의 실습업무는 기본적으로는 수술실의 구조(비 제한 구역, 준 제한 구역, 제한구역), 환경(온도, 습도, 양압,음압 수술실 등), 소독간호사와 순환간호사

의 역할 및 업무, 소독과 멸균법(수술기구와 멸균기구, 피부소독제, 외과적 손 씻기, 봉합침의 구분 및 종류, 봉합사의 구분 및 종류, 마취 종류와 기전, 회복실 간호 등을 알아보았고, 그 이후 대부분의 실습과정은 수술 전 날 예정된 수술 환자 리스트를 보고 이론수업에서 연관되어 관심이 있는 수술, 공부해보고 싶은 수술명을 적어두고 공부해온 뒤에 실제 수술에 참관하여 전반적인 수술절차와 간호를 포괄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간호사선생님의 인계 하에 직접 봉합침, 봉합사, 수술기구를 만져보고 수술에 참관하면서는 충분히 관찰한 마지막 날에는 거즈 등으로 외과적 무균법을 통해 소독간호사선생님께 전달해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특수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심하기도 하면서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처능력과 의료진과의 협력과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교육에 참여하면서 실습학생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수술 절차나 환경 등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한 횟수가 많았던 것 같다.

2학년 즈음에 계획했던 부서가 실습을 통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첫 실습이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습에 열심히 임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부생리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고난도의 집중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술실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특수파트 중에서도 수술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 의미 있는 실습이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같은 부서의 실습 기수 동기들과 2명씩 팀이 되어 수술방에 참관하였고 개인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이 아닌, 궁금한 점이나 수술과정에 대해서 의논도 해보고 함께 알아가는 과정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수술 일정표를 보면서 미리 예습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실습학생들을 위해 배려해주시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참관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수술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덕분에 실습 후에 전공 관련 책과 강의를 다시 들어보거나 수술 관련 영상들을 비교해보면서, 이론에서 언급된 질환 및 질병에 대한 기전, 수술, 치료 및 간호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었고, 실제 보았다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다.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수술명을 확인하고 알맞은 수술기구 등을 준비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간호사라면 과학이며 예술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임상에

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시대가 바뀌면서도 간호도 환자에게 맞는 최상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실습을 계기로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의 효율성을 위한, 안전성을 위한, 정확성을 위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수정 및 변경되고 추가되는 수술기구, 기계나 수술시스템, 병원 커리큘럼에 대해 익히는 등의 다재다능한 만능인이 되어 제목처럼'차가운 공기 속에서(낮은 온도) 따뜻한 간호(업무에 대해 능숙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간호)로 수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수술실이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실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자와의 직접적인 라포 형성과정이나 회복실을 제외한 수술 이후의 상황과 제공되는 간호에 대해서는 직접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고, 학생의 입장으로 학교에서 대부분 핵심술기를 통한 필수적인 간호수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이론위주의 수업의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호를 포함하여 특수파트의 업무가 낯설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실습 전 시간으로 전 기수의 실습후기를 듣는 시간이나, 수술기구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면 현장실습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시간 안에 자유롭게 수술에 참관하거나, 기구나 멸균, 준비 등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다양한 수술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았으나, 아쉬웠던 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실습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술 전 인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준비과정, 수술절차, 마취 및 회복기 간호까지가 아닌 더 나아가 병실이나 중환자실까지 올라가서 한 대상자의 전반적인 수술 전, 중, 후 간호를 볼 수 있다면 더욱 폭넓은 간호과정 적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03

병원 현장실습을 통한 경험

실습생: 정나영
현장실습기관: 건양대학교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현장실습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1000시간의 실습을 완료해야 해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이 현장 실습을 통해 병원, 보건소 등에서의 주요 환경을 익히고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며 해결 방법이나 그 상황에서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실습 전에는 환자나 보호자로서의 입장으로만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기에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상 실습 프로토콜을 배우며 이를 어느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습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사람인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반응이나 결과를 보일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현장실습을 통해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교재를 통한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포함해 간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우고 싶어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병원에서의 현장실습은 당연하겠지만 주로 환자에게 행해지는 간호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기록, 간호 준비 과정 등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간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병동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 간호 인계를 전체 인계와 팀 인계로 나눠, 전체 인계에서는 이번 근무 시간 전에 환자들에게 벌어진 큰 사건 등을 모든 간호사에게 알렸고 입퇴원 환자에 대한 관리나 주의 사항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팀 인계 시간에는 담당 환자를 나눠 전체 인계 때 듣지 못했던 세부적인 사항인 검사결과, 활력징후, 투약, 의사 오더 등에 대해 듣고 각 환자에게 정확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전체 환자리스트를 보며 간호사분들이 말하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기록하였고, 하루에 행해질 간호에 대해 예상해보고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후 계속된 실습을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인계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계가 끝난 후에는 담당 병실을 돌며 투약을 시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약오류 예방을 위해 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께 경구투약 실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투약 시 프로토콜을 생각하며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챙기지 못한 물품을 드리며 투약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경구투약은 직접 시행해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실습에서는 간호기록을 가장 많이 관찰하였는데 투약 등 중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 환자의 요구, 검사시간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간호 진단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간호에서 기록은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간호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시행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EMR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지 관찰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며 필요 시 환자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 바코드 등을 뽑으며 간호 환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낙상. 통증, 욕창 위험도에 대한 사정 도구를 배웠는데 입원 시 환자에게 직접 사정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이론상 배운 내용을 실제 간호에 적용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인 저희가 사정할 수는 없어 관찰만 하였지만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답변을 들으며 위험도에 대해 예측해보고 간호사분의 사정 결과와 비교해보는 노력을 통해 환자 사정에 대한 간호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간호는 활력징후 측정이었는데 따로 병원에서 배우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운 프로토콜 대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몇 개의 병실만 가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혈압 측정 중 체온이나 호흡을 확인해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했고 나중에는 20분 정도의 시간동안 담당된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 시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유연하게 간호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활력징후말고도 다양한 프로토콜의 적용을 보았는데 위장관 시행이나 유치 도뇨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는 순서대로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하고 도뇨 시에는 무균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호를 시행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 병실에 가서 간호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는 날마다 배운 항목을 체크해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간호를 관찰하고 배우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현장실습 전에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보며 간호사의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진로를 찾기에는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현장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일이 저에게는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적응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저에게는 간호의 활동을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만 다르게 하면 되는 병동 간호사의 일이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환자를 마주하며 대화도 하고 간호를 위해 꾸준히 움직여 지루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기에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던 저에게 적성에 맞는 다는 것 등을 느끼며 배울게 많은 실습이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간호 학생으로서 더 자세히 간호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 취업 후 간호사의 일을 할 때 비판적 사고 능력, 판단력, 수용력, 중재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 교과목을 배울 때 질환별로 필요한 간호를 익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에서 몇 년동안 근무를 하신 간호사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일반적인 병동 간호사 말고도 전문간호사, 산업간호사 등 다양한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취업에 대해 넓은 시선과 정보력을 가지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현장실습을 통해 간호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는 달라지고 그에 맞춰 간호사도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도 간호 학생으로서 배웠던 내용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 많아 한가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응용하여 적용해보며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들끼리의 조직력, 협동력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동 안에서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 간호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간호사, 수행하는 간호사, 기록하는 간호사 등 역할을 빠르게 나누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간호사라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협동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활동이므로 직업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봉사심이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직업이라고만 생각하면 고되고 힘든 일이 많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간호는 희생, 봉사, 사랑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위임을 계속 각인시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실습의 첫날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체력이었습니다. 8시간 정도의 실습을 했음에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 힘들어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취업 후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간호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습과 취업 후 근무를 위해서는 체력을 향상 시켜 간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피곤함과 아픔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만을 생각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병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이다 보니 실수가 있으면 안되어 주로 간호를 관찰하며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것을 시행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의 마음이 있기에 관찰만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검사실로 이송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는데 이런 활동도 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셔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었습니다. 실습 중 십습생들끼리 IV 등을 시행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혈당 측정 같은 활동을 해봐도 되겠냐고 여쭤본 뒤 허락을 받아 간호사 분의 지도하에 실습생들끼리 정맥을 찾아보며 첫 IV를 시행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 과정이나 수행 후 느낌 등을 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물품 준비나 검사실 이송, 실습생들끼리의 활동 등이 많아진다면 현장실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4

실습가면 뭐하니?

실습생: 정영성
현장실습기관: 건양대학교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간호학과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성인간호, 아동간호, 여성간호, 정신간호, 지역사회 임상 실습 시간이 있다. 실습 장소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중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이다. 학생 스스로 실습 병원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대전에 있는 각 병원마다 발품을 팔아서 학생들을 위해 실습 병원을 배치해 주신다. 학생들은 실습을 위한 건강검진과 기본 핵심술기, 의학용어를 복습하면서 실습 병원에 나갈 준비를 한다. 실습병원은 간호학과 까페에 공지되고 그 공지를 확인한 학생들의 기쁨과 탄식이 교차되면서 실습지가 정해진다. 병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한 학기에 2번, 2곳의 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나가게 된다. 대전에 위치한 종합병원·대학병원 중 나의 첫 임상 실습지는 건양대학교 병원 54병동이었다. 나의 첫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병원별로 준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지 확인을 잘 해야 한다. 건양대학교 병원은 실습 전 손씻기 시험과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이 되어야 실습을 할 수 있다. 손씻기 시험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 씻기가 아니라 환자를 처치하기 전에, 처치한 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전, 마시기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환자들을 위해 손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임상실습 1주일전 코로나 PCR검사를 받는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검사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그때 들려온 소식 하나. “학교에서 PCR검사 비용을 줄테니 학생들은 건강하게 임상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와우!!! 임상실습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하는 기쁜 소식이였다. 일희일비가 매순간 교차되는 임상실습 준비기간이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임상실습에서 업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활력징후 측정, 환자 이송, 환의 교환, 화장실 이용 도움, 의료 물품 정리 정돈등 다양한 업무를 해 볼 수 있다. 임상 실습을 하는 동안 이론에서만 접했던 의료 행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다. 임상 실습 시간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건양대학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본격적인 임상 실습을 하기 전 병원별로 OT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그 대신에 LMS로 임상 실습 OT를 대신했다. 교수님들의 LMS강의에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교수님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했던 이야기 “우리는 최강 DST 간호학부!”그 자부심과 함께 임상실습의 설렘이 우리를 감싸고 돌았다. 임상 실습 적응을 위해 먼저 내가 실습할 병동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 위해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께 여쭤보았더니 응급환자전용 병동이였다. 응급실에서 병실에 옮기기 전 3일~5일 정도 치료를 받는 곳이다. 그 말은 한가지 진료를 집중 치료하는 병동과 달리 여러 진료과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약어를 제대로 다시 알아야겠군.’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다. 병원 진

료명이 한글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약어로 써있는데 약어를 모르면 임상실습시 아무것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임상실습생들은 임상실습시 지침서를 꼭 지침하고 다녀야 한다. 그 지침서에는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서명을 하는 장이 제일 첫 장에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가 임하는 실습이 무엇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다. 지침서에는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습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시뮬을 해 볼 수 있다. 지침서에 내용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때 괜히 코가 찡해진다. '아 나도 이제는 의료인이구나.'임상 실습은 2주지만 임상실습을 하기 위해 우리는 2년의 이론 시간과 방학에도 핵심술기를 익히면서 임상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임상실습은 다양한 일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임상실습을 통해 나는 인공신장실, 간담췌 역행술,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X-ray실, 암병동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은 이론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실제 환자가 검사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전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환자 이송 업무를 하면서 wheel chair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침대 이송 업무도 실습생 업무 중 하나였는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는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 침대 side rail 사용, 침대 바퀴 고정 장치를 직접 작동하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병원 용품들이 늘고 있었다. 내가 실습하는 곳은 골절 환자도 많아서 책에서 보던 항혈전스타킹과 간헐적공기압박기, 공기 매트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았다. 대퇴골 골절 88세 노인 환자분이 입원했었는데 그 환자분이 입원 당시 공기 매트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처방이 내려져서 공기 매트를 적용해야 하는 환자분이 있었다. 환자가 침상에 있는 상태에서 매트를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와 또 다른 실습생,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 셋이서 침대 매트리스를 깔고 장치에 연결해 본 경험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퇴골 환자 65세 환자분 환의를 교환하고, 압박 스타킹, 간헐적 공기압박기 적용은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다 해 보았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환자를 대하는 것도 두렵고, 혹시 나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친절했고, 간호사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설명을 잘 해 주셨다. 임상 실습을 하면서 나도 제대로 해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들의 안위를 위해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임상실습을 통해 느낀점은 현장감이였다. 그들은 책 속에 질병으로 분류되는 카테고리가 아니였다. 정해진 규칙과 매뉴얼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지식 위주로 암기하고, 성적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다양하고 많아진다. 그러면 환자의 needs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간호사는 다르다. 간호사는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식적으로 환자를 대하면 환자들은 다 안다. 지혜롭게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임상실습은 큰 부담중에 하나이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오는 긴장감과 눈치,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성까지 있어서 더 많이 힘들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2주동안 머물렀던 병동과 병원에 가보고 싶다. 그냥 찾아가서 바쁜 선생님들을 대신해 도와드리고 싶을때도 있다. 지금은 준비가 안되어서 그럴 수 없는 게 아쉬울 뿐이다. 임상실습을 통해 나는 진정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계획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병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이다 보니 실수가 있으면 안되어 주로 간호를 관찰하며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것을 시행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의 마음이 있기에 관찰만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검사실로 이송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는데 이런 활동도 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셔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었습니다. 실습 중 십습생들끼리 IV 등을 시행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혈당 측정 같은 활동을 해봐도 되겠냐고 여쭤본 뒤 허락을 받아 간호사 분의 지도하에 실습생들끼리 정맥을 찾아보며 첫 IV를 시행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 과정이나 수행 후 느낌 등을 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물품 준비나 검사실 이송, 실습생들끼리의 활동 등이 많아진다면 현장실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5

실습은 처음이라..

장려상

실습생: 김현정
현장실습기관: 대전성모병원 HD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던 3학년 1학기는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에 현장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 때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싶어하던 그저 그런 소망이 열망으로 변했고, 3학년 2학기에는 반드시 참여해 내가 그동안 학교 안에서 열심히 성장시킨 핵심 역량을 보여주고 말겠다는 각오가 마음 한 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선배들의 말도 한몫을 했다. 선배들은 한결같이 현장실습은 힘들지만, 꼭 나가야 된다며 학교에서의 실습은 한계가 있어 현장에 나가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배웠던 핵심 술기 방법들과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고 변화되는지, 현장에서의 핵심 술기방법과 학교에서 배웠던 핵심 술기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더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해 나의 업무 스타일을 알아보고 내가 어느 부서에 잘 맞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간호사가 될 나에게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장실습에 꼭 참여하고 싶었고, 현장실습을 통해 내가 배울 것들에 대한 설렘이 생겼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나는 대전성모병원 인공신장실(HD)에 배치되었고,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실습 학생을 받기 시작한 부서였다. 인공신장실은 말 그대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곳이며, 정해진 시간마다 투석 기계를 통해 환자분들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고 늘어난 체중을 건체중으로 맞춰주는 곳이다. 또한, 혈액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나는 “시간”,“성실”에 대한 굳은 각오를 하며 실습에 임했다. 실습 첫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전 나타나는 환자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인공신장실은 특수하게 투석 기계를 모든 간호사가

다룰 줄 알아야 하므로 투석 기계 사용법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투석 기계가 생소해서“복잡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지만, 그럴수록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시켜주실 때 더 적극 나서서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투석 기계 조작은 물론 투석 기계를 setting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인공신장실현장실습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거의 같은 환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수행과 간호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일부러 이름을 불러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맞는지 자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덕분에 응급상황에 잘 노출되는 환자분들의 상태는 구별할 정도로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에게 환자분의 증상을 알리거나 옆에서 보조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됐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혈관(CVP, 자가혈관, 인공혈관) 종류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투석 방법 과정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도 보고 직접 공부하면서 투석원리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간호학과가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내 적성에 맞는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나는 실습을 하면서“가까운 미래에 간호사가 될 나는 주체적인 간호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내가 실습을 했던 인공신장실이 간호사의 주체적 판단이 주가 되는 곳이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또한, 내가 활동적이고 변화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수부서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내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 탐색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 좀 더 명확해졌다. 목표를 설정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학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현장실습을 계기로 나는 성공적인 취업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이번 현장실습을 하면서 “현장실습을 나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학교 내 실습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장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있고 학교에서 배운 것 중 조금 다른 부분도 더러는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내 모습을 봤던 것 같다. 현장실습은 머리와 몸이 같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이었다. 또한,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셔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적극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게 실습이 끝나고 보니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날 얻어갈 수 있는 경험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에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선생님들 옆에서 돕고 관찰하면서 바로 옆에 물어보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좋았다. 인공신장실에서 실습하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장과 투석 기계에 대해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현장 실습에서도 바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으로 인한 피로감이 증가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이 피로감은 가벼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피로감은 피로에 그치지 않고 건강 악화와 체중증가를 유발해 투석량을 늘리게 되어 더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에 반해 피로감에 대한 적절한 사정 도구도 없고 적적한 간호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피로감 사정 도구를 만들어 환자들을 사정하고 조금이라도 개선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교육자료를 통해 꾸준히 교육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06

Mission1. 코로나19 속 첫 현장실습 다녀오기

실습생: 배정은
현장실습기관: 유성선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이번 2020년 2월 말, 나는 3학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전 세계가 겪게 되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컸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이기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 우선 비대면이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1학기 실습은 전면 무산되었다. 실습은 나갈 수 없었지만 실습 부서는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였다. 나는 특수파트를 병동파트 보다 더욱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컸다.

그러나 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갑작스러운 병상 확보와 간호인력 확보 등의 대형 응급상황이 있을까 싶었다. 물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기로 전 세계적 의료수준의 향상과 개선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래에 내가 코로나 전선에 뛰어 들어 활동하는 간호사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나라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고민해보고 나의 전공과 직업에 대해 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비대면 수업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전 유성선병원 수술실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러나 병원과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모든 부서를 통틀어 수술실은 내가 가장 희망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1학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미지수이기에 마지막 실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것을 배워오고자 했다. 첫 현장실습을 통해 내가 희망하던 부서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간접적으로 경험 해보고 싶었고, 이 실습이 미래에 정말 내가 배치가 된다면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케이스를 쓰며 적용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지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우선 수술실은 출근 시간은 7시 50분이라고 되어있지만, 8시 반부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빠르면 6시 반에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특수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방으로 들어가 모두 같이 수술실 청소를 한다. 수술실 청소 또한 감염과 위생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이므로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청소가 끝나면 업무 시작 전 조회를 한다. 인수인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하루의 대략적 스케줄과 중요 수술, 병원 공지, 안내사항, 수술실의 부족한 점, 개선점, 칭찬할 점 등에 대해 인계하신다. 그리고 조회가 끝나면 각 선생님들은 자신의 파트에 해당하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수술 준비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들어오고 마취 전문의가 마취를 한 뒤, 의사와 간호사는 타임아웃을 실시하며 정확한 환자 확인과 수술 부위, 수술명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수술을 마친 뒤 환자를 마취에

서 깨어나도록해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병실이나 중환자실로 보낸다. 환자가 수술방을 나감과 동시에 수술실은 빠르게 다음 수술을 위해 이미 청소가 된 상태이고 다음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약 2주간 이런 내용이 반복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을 예방해야하므로 수술방 가장자리에서 직관하며 관찰했다.

아침 7시 50분까지 환복을 하고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활동을 관찰해야하고 환자 케이스 또한 관찰해야 하므로 빨리 실습 상황에 적응해야했다. 하지만 실습을 나가기 전 걱정과 달리 선생님들이 친절히 잘 알려주셨다. 그리고 직접 다가와서 궁금한 것은 없는지, 기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떠한 수술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은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선생님들 덕분에 잘 해나갈 수 있었다. 내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다음날 관찰하고 싶은 수술에 대해 공부를 해 가는 것, 잠에서 이겨내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집에 도착하여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수술에 대해 공부한 후 무조건 취침하려고 노력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간호학과는 솔직히 교내실습 이외에는 이론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병원 내 간호사의 역할과 병동의 분위기나 느낌 등을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확실히 내가 직접 수행을 하지 못하여도 한 번 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실습을 통하여 더욱 전공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었다고 느낀다. 미디어 매체에 노출된 메디컬 드라마는 너무 미화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더욱 사명감이 높아지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여주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이론들은 헛된 것이 아니고 직접 이해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보고 증명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성취감이 향상되고, 추후에 내가 어떤 병원에 취직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지는 좋은 계기였다.

또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조금이라도 컨택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느껴지기에 그곳에서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론적인 것들을 나에게 체화가 되도록 하여 반사적으로 나오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첫 현장실습이었기에 긴장되고 걱정되었지만 기대도 되었다. 막상 한 학기 실습을 마치고 나니 아쉬움이 컸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만큼 다음 실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수술실에서도 기본간호는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간호는 더욱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며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실습을 직접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의 의문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실습을 나가게 될 다음 학년들에게 기본간호는 필수로 공부하고 핵심술기도 열심히 공부하면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싶다.

이번 현장실습이 처음이었지만 이 다음해에 새롭게 실습할 부서에서는 내가 배운 이론을 토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실습을 나가면 병풍이라는 말이 많지만 나는 아직 면허증도 없는 학생간호사로서 관찰하며 내가 배운 것이 어디에 쓰여 지고 어떻게 수행되는 것인지 직접 알아가는 과정 또한 배움이라고 생각하기에 필요 없는 활동이 아닌 나에게 매우 득이 많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좀 더 부지런하고 실습에 애착을

가지고 뭐든 더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실습은 미래에 나의 직종 선택 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열정을 보인다면 현장 실습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신 다는 것을 깨달았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어서 학생들이 눈치가 보여 너무 잦은 질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실습을 나가는 부서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지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아무 선생님께 여쭈어 보기에는 많은 업무량에 쉬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사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실습을 참여해야 한다든지 등의 공지를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장실습을 나간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답도 잘 할 것이며, 학교의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미리 많이 공부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미리 언지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한 현장실습은 무작위로 배치가 되어 집과 현장실습 장소의 거리가 너무 먼 학생들도 있다. 여기에 교통비까지 막대하게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점심식사 비도 개인이 부담하는 곳도 많으므로 접근성이라도 좋아야 학생들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습장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동시간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야하고, 잠이 부족하여 실습 와중에도 피곤함으로 인해 실습 집중도가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부서 배치 전 학생들의 사는 동 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이 편이한 거리로 배치한 후 실습이 진행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실습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기대해 본다.

07

'매력적인 전문가,치과위생사'

장려상

실습생: 김혜원
현장실습기관: 소리소플러스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현장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상호 실습과 대상자 실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교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던 상호 실습과 대상자 실습을 코로나 19로 인해 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을 직접 적용하고 활용하기에는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 임상실습을 통하여 환자를 대하는 방법, 협조자로서의 자세, 치과위생사의 자질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장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현장 임상실습에 나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준비나 멸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해볼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현장 임상실습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명목적인 동기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프로페셔널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자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2020 하계 현장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처음에 현장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교수님들께서 실습생의 부담감을 아셨는지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자세, 예의, 대상자에게 많이 적용하는 술식 과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해주셨다. 그리고 간접실기시험을 치루면서 기존에 이론적으로 배우고 교내 실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현장 임상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현장 임상실습을 나간 첫날에는 현장의 분위기와 기본기구의 위치, 서랍장 안에 어떤 재료와 기구들이 들어있는지 등을 메

임플란트 수술 기구

모장에 적어 두거나 같이 간 친구와 함께 문제를 내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구를 세척하는 법부터 기구를 소독한 후 보관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확실히 익힐 수 있었다. 그 후에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스케일링이나 인상을 채득하는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직접 스케일링을 하실 때 Suction tip을 잡아볼 수 있었고, Bite tray에 고무 인상재를 짜보기도 하고, 알지네이트 인상재를 Mixing, 석고 주입 등의 실습을 해볼 수 있었다. 또한 내원한 환자분의 차트를 보고 그 술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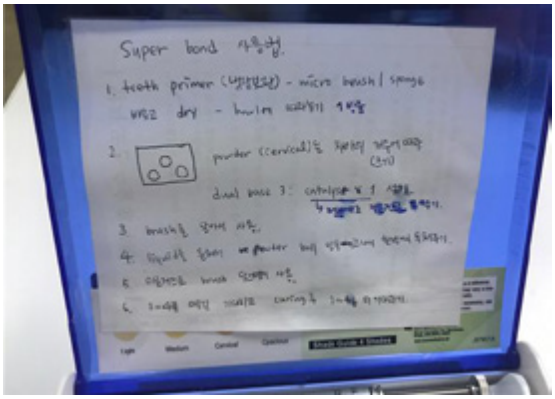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간접실기나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술식 과정과 기구 구별법 등을 실습했다. 그렇기에 현장임상실습과정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술식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배우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술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인지하시고 술식을 진행하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각 환자 상황에 맞는 cs 관리도 추가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다.

현장 임상실습을 나갔던 곳에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업무 분야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를 보며 각 분야에서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맡은신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환자 입장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보철물의 종류, 재료 등을 상담해주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보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배웠던 진료과목 중에서 1순위에 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임상실습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진료과목들 보다 보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치과 보철학에 대한 술식 과정을 더욱 눈여겨 보게 되었다. 이에 보철학과 관련된 기구와 장비, 재료 등을 보고 배우며 현장 임상실습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역량을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임시 치아



치경부 마모에 사용하는 super bond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실습 같이 나간 친구들과 한컷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현장 임상실습을 나가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후에 공부를 할 때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을 먼저 겪어보고 배우고 와서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기구의 모양이나 재료를 다루는 방법 등을 직접 보고 해볼 수 있어서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 임상실습을 나가서 해본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임시치아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본 것이다. 임시치아를 능숙하게 만드시는 선생님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나중에 꼭 선생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 본 거 치고는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앞으로 제가 치과위생사가 된다면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치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다재다능한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 치과위생사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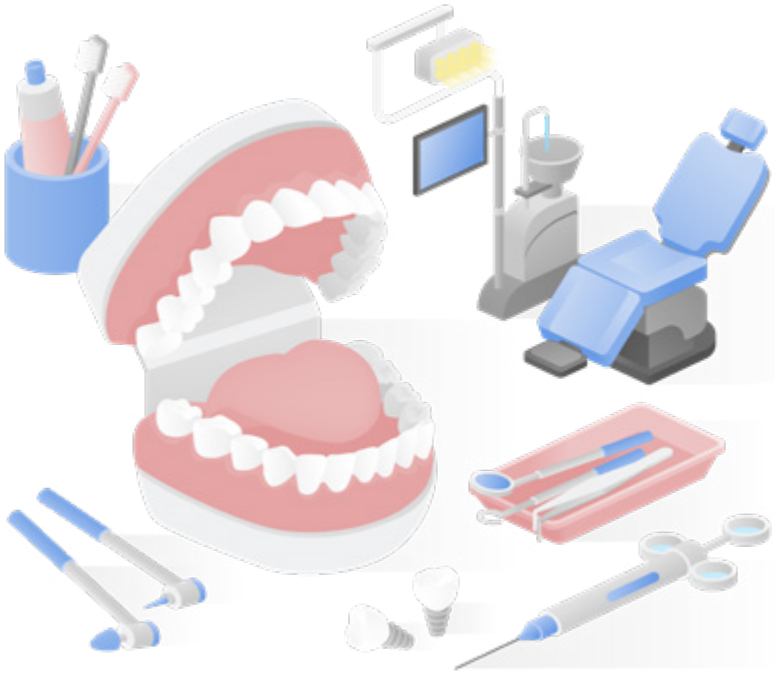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서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습기관에서 술식 과정이나 중요한 기구 등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감염에 위험한 곳이 치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과는 특히나 에어로졸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고 해도 감염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발열 체크 및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장 임상실습에 나가서 본 치과에서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발열 체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자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책자나 포스터 등을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붙이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출근을 해서 의자나 선반, 유니트 체어 등은 소독제를 이용해 닦았다.

이처럼 가장 감염에 취약한 곳인 만큼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소독과 발열체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08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장려상

실습생: 최지안
현장실습기관: 연세본치과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현장 임상실습을 진행하기 전 나 자신이 현장 임상 실습에 참여한다고 해서 '나의 역량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장 임상실습에 참여한 첫날부터 나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술식 과정과 재료, 기구 등을 배우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 진행했던 간접실기시험과 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 임상 실습을 통해 다양한 술식과 과정, 그리고 기구, 재료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에 교내에서 다양한 실습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실습, 대상자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여 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현장임상실습에 참여하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기구와 장비들의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도 자세히 인지하고,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다양한 치과진료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실습, 대상자 실습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임상현장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현장실습 기관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환자를 대하는 자세, 기구와 재료의 멸균, 소독과 기본 기구를 준비 정도 등의 기본적인 업무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숙지할 수 있었다.

치과에서 환자와 치과의사선생님, 그리고 진료팀과 협력하여 일하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보면서 전문가 치과위생사 선생님의 모습을 탐구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자주 사용하는 재료와 장비의 위치, 각 술식 과정에 맞는 장비와 재료, 기구들을 준비하고 술식 중간에 필요한 기구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실습하는 치과에서 자주 하는 술식을 공부하고, 메모지에 적어 최대한 치과위생사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궁금한 점은 메모지에 적어 환자분들이 안 계실 때 치과위생사 선생님께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인지하여 실습 일지에 자세히 적으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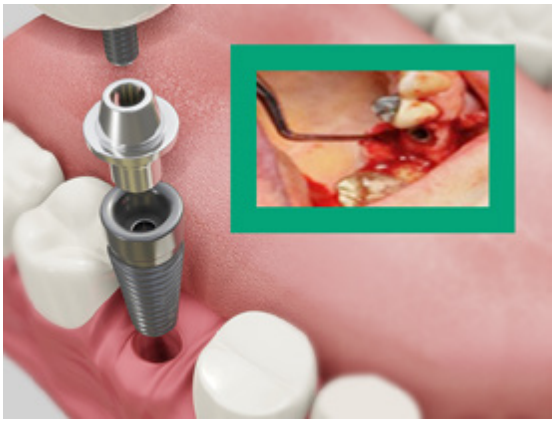
실습 중 사용했던 기구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현장 임상 실습과정에 참여하면서 나의 현장에 대한 역량은 확실히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습을 나가기 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았고 작년에 실습을 진행하였던 선배님들보다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술식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며,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그에 대한 역량이 비슷해질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에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능력을 계속해서 되물어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의 능력을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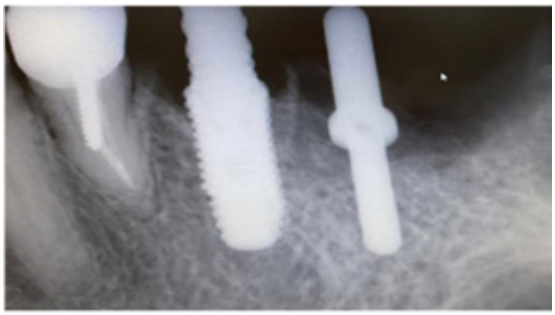
실습하면서 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치과에서 물 같은 존재로서 치과위생사가 없다면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환자가 내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환자의 상황과 불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환자의 c.c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를 보면서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다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환자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임상 실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의 전공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내 꿈과 전공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Fixture 식립 후 사진

골 이식 후 사진



Fixture 식립후 축방향 검사-치근단 영상

골이식 임플란트 수술 진행후 방사선 사진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2020 하계 임상 실습을 나가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장 임상 실습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준비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술식에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이 많은 치과위생사도 준비된 치과위생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습적으로도 준비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이 배경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장 임상 실습에서 현장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하며, 의사 선생님과의 협동을 위해 술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만약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없었다면, 실습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와 재료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내 전공에 한 걸음 다가가기 전 현장에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실습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주간의 현장 임상 실습 과정을 겪으면서 환자에게 최상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학교에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 중 점심시간에 한 컷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곳에서 체온 측정, 출입자 명부, qr 코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 병원보다 에어로졸에 의한 교차 감염과 2차 감염률이 높은 치과에서 소독과 멸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치과에서의 소독과 멸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현장 임상 실습을 나갔지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소독과 멸균의 과정은 이론과 같지만,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에 현장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소독과 멸균의 실제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실습 중에 개선하고 싶은 업무는 적용할 수 있고 확실한 소독과 멸균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 임상 실습에서 바로 적용하고 인지할 수 없는 어려운 소독과 멸균 과정을 배운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현장에 나가서는 어려운 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미숙하게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실습 과정에서 적용이 바로 가능한 소독과 멸균의 과정, 방법을 배우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실습 치과에 대해서도, 졸업 후 현장에 나가서도 철저히 소독과 멸균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09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기

장려상

실습생: 김다희
현장실습기관: 대전한국병원

Q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실습 1000시간을 채워야합니다. 원래 3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장실습에 나갔어야 했는데 COVID-19 때문에 1학기 때는 비대면으로 실습을 진행하다가 2학기가 되어 처음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 수가 많아서 병원이나 실습병동, 부서는 랜덤으로 진행되는데 수술실 간호사가 꿈인 저는 대전 한국병원 수술실(OR)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서 실습배치표 보자마자 소리를 지를 만큼 좋았습니다.

실습 첫날 병원 가는길에 본 반가운 우리학교

Q 현장실습 업무 내용 및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현장실습으로 대전 한국병원 수술실에 나가게 된 저는 아침에 가서 수술실 복장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신은 후 수술 전 수술방 청소, 수술끝난 후 청소, 수술하는 모습 관찰, 멸균할 용품 내려보내기, 멸균 용품 받기, 다른 부서로의 심부름, 수술 끝난 기구들 물기제거 및 정리, 멸균포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수술실을 갔을 때는 낯설고, 평소 볼 수 없었던 병원의 모습에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였고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할까요?”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며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쌤 이것 좀 해줄래요?”하시며 세심하게 알려 주셨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것을 보고 장갑있는 위치를 기억했다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센스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학용어가 아직 서투른 저는 수술명이 모두 의학용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용어들은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찾아보기도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면서 현장 실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전공 및 취업역량 향상, 진로 탐색 등 현장실습 성과 및 효과

수술실에 대해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 순환 간호사 등에 대해 성인간호학 시간에 배웠고, 외과적 손씻기와 올바른 수술실 복장 착용법을 기본간호학실습시간에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암기하고, 공부할 때는 무균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술실에 와서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환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외과적 손씻기 하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관찰하였고, 멸균 가운 착용하시는 것도, 환자 체위변경하여 마취시키는 것도, 타임아웃하고 거즈나 바늘의 수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이론으로만 공부하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니 너무 신기하고 대단했습니다. 현장실습에 나오기 전에는 실습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실습 나온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실습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느끼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실습 동기를 만났고, 수술실 간호사가 꿈이었던 저는'내가 이 일을 직접 한다면 어떨까?'라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과 스크럽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분류 되어있는 것을 보며 나에게는 수술실 간호사중에 어떤 간호사가 어울릴까? 내가 어떤 일을 더 잘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Q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나 각오

수술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무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중에 수술실을 지나가다가 씨암(C-arm)기계를 싸고 있던 비닐에 스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던 선생님도 다들 놀라셨고, 급하게 비닐을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저를 위로해주셨고,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실을 지나다닐 때 더욱 신경을 썼고, 수술실은 다른 곳보다 더욱 청결해야 하며 무균에 신경써야 하는 곳인 것을 깨닫고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지인들이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겠니?"라며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저 또한 피를 무서워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저는 용감했고,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술을 하는 시간에 제가 표정을 찡그리면 수술하고 있는 환자에게 예의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최대한 무표정으로 수술을 관찰하였습니다. 수술실 실습 기간 중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을 하는 수술이 가장 많았는데 여러 차례 보다보니 어떻게 진행하는 수술인지 알 수 있었고,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제가 대견해 지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실습이니만큼 피곤하기도 했지만 배울점이 많은 유익한 실습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보고 싶은 수술은 언제든 참

점심시간에 즐기는 잠깐의 여유

마지막날 실습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실습 동기랑 서로 써준 편지

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이 관찰하고 배울 수 있었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기구인지, 어떤 마취약이 쓰였는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할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케이스의 수술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수술을 지치지 않으시고,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존경스러웠고, 수술마다 사용하는 기구가 다른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외우셨지?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선생님들께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은 간호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내가 간호사가 되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온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긴장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바쁘더라도 세심하게 알려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 굳건해졌으며 암기력이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스크럽 간호사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현장실습 업무 중 개선하고 싶은 업무 및 개선방향

대전 한국병원 수술실에서 실습한 업무중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없고, 처음나간 현장실습 경험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해 다른 병원과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DST 대전과학기술대학교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행일 : 2021년 2월

발행처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35408)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전화 : 042-580-6086
팩스 : 042-580-6127
http://www.dst.ac.kr/